

이렇게 볼때 우리 益山鏡은 形式 發展上 粗文에서 精緻한 細文鏡에의 發展過渡段階에 있다고 하겠으면서 一種의 傍系 墮落形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圖示하면 다음처럼 될 것이다.



한편 扶餘 草村面 蓮花里出土의 細文鏡(金載元「扶餘、慶州、燕岐出土 銅製遺物」震檀學報二五七合號)도 精緻文前期의 發展式粗文鏡이었으며 이러한 湖南一帶의 細文鏡들은 앞으로 새로운 角度에서 考察해 볼 必要를 느끼는 바이다.

한편 細形銅劍은 白綠色으로 녹이 너무 쓸어서 刃部는 兩側이 모두 떨어져 없어지고 劍稜部만 남아 있으나 그것도 二折되고 缺失된 部分이 있어 正確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大略三〇cm 가까운 全長을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現存하는 二片의 길이는 各各十四·五cm 六·五cm 이다. 寫眞에서 보다시피 劍稜下部에는 細形銅劍特有的 패어진 部分이 있으며 劍鋒部가 가어서는 血溝末端보다 劍鋒이 훨씬 길게 뻗고 있으며 刃部가 몹시 좁은 典型的인 細形銅劍이라고 생각된다. 宋先生말에 依하면 全州博物館에 移藏된 完形品도 같은 形式이라고 한다.

益山中學에는 이밖에 劍柄, 銅劍 등 數點이 있으며 이地域 初出의 如斯資料로서 모두 貴重하며 西海岸地方으로 퍼져 내려가는 初期鐵器文化의 樣相에 대해서 많은 資料를 提供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全南地方 忠南地方의 이러한 發見品의 增加가 當然히 豫想되며 그에 따라서 從來 看過되었던 이 地方古代文化의 여러 問題點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追記) 原稿作成後 全州博物館長 全榮來先生의 厚意로 그銅劍의 寫眞과 實測圖를 얻을 수 있었다. 그에 依하면 全長三五·二cm의 亦是 劍鋒部가 긴銅劍이며 全面에 白綠色 녹이 甚하게 붙어 있다.

安東 琴韶洞 塔像

秦 弘 燮

安東郡 臨河面 琴韶洞에 塔像이 있다는 同洞 林致大氏의 通報에 依하여 現場에 出張 調査한 바 있었다. 安東에서 吉安行 卞스로 琴韶에서 下車하면 마을 한 복판에 民家の 담을 사이에 두고 南에 石塔 北에 石佛이 있다.

石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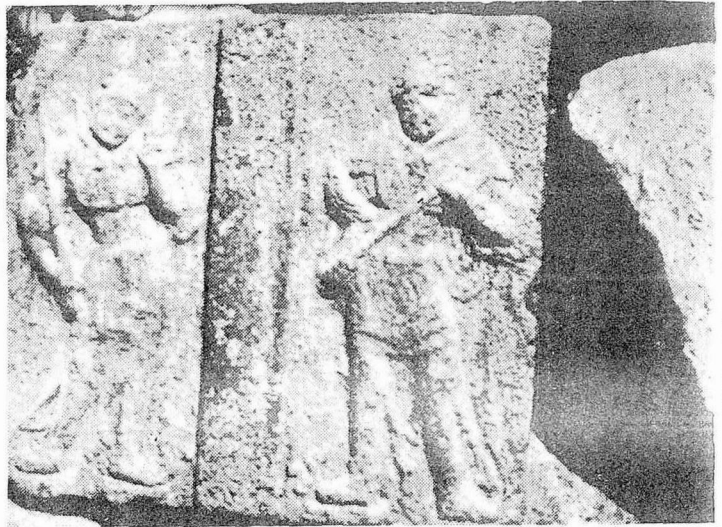
石造如來坐像으로 破損이 甚하다. 雨露를 막기 爲한 簡單한 施設이 있으나 그것도 老朽가 甚하다. 그래도 破片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을 보면 民家內에 들면서부터는 큰 損傷은 없었던 듯하다. 臺座는 八角의 通式으로서 地臺石은 地下에 있어 자세한 細部를 알 수 없고 下臺는 複瓣八葉의 伏蓮으로 밑의 各側面에는 眼象이 一座씩 있고 위에는 角弧의 물딩이 있어 八角 中臺石을 받고 있다. 中臺石 各面에도 眼象이 一座씩 있으며 柱形은 省略되었다. 上臺에는 仰蓮이 있으나 破損이 甚해서 完存하는 面이 하나도 없고 下端의 一部에 남은 彫刻으로 보아 花瓣內에 花文이 있는 듯하다.

佛身은 頭部 兩腕等이 切斷되었고 相好는 磨損이 甚해서 알아볼 수 없을 程度로서 그야말로 滿身瘡痍이다. 남은 部分으로 미루어 相好는 제법 整頓된 輪廓을 보이고 右肩偏袒에 降魔觸地의 手印을 結하고 있다. 彫刻手法는 제법 부드러우며 背後에는 彫刻이 比較的 잘 남아 있어서 左側 어깨에서 흘러 내린 衣紋이 제법 뚜렷하다.

臺座高七八·五cm 身高六五cm 頭高三五cm 膝幅七五cm

石塔

石塔 亦是 破損이 甚하여 部材가 散亂되었으며 特히 上層基壇 面石이 밖으로 떨어져서 積心石이 흘러졌고 그 안에 初層塔身이 落下되었고 第



二第三의 塔身은 없다. 現在 남은 部材도 基壇 周邊에 埋沒된 것이 많을 듯 하나 一部는 담 밑에 깔려 있어서 外見만으로는 全貌를 把握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大綱의 構造를 보면 二重 基壇上의 三層 石塔으로 下 基壇面石에는 十二支像을 上 基壇面石에는 八部像이 陽刻되었다. 十二支像은 慶州 甘山寺址에서 慶州 博物館에 移置한 基壇石의 十二支像

과 恰似한 形式으로 躍動하는 姿勢를 보이고 八部像은 허리를 꼬고 있는 溫柔潤達한 姿勢가 十二支像과 相通되며 彫刻手法도 매우 優秀하다. 上甲石 上面에는 角弧의 물덩이 있어 初層塔身을 받게 되었고 屋蓋石은 四段의 받침이 있고 추너는 直線에 轉角이 들리고 있다. 屋蓋石도 破損이甚하여 轉角이 남은 것이 一, 二에 지나지 않을 程度이다. 相輪은 一石으로 된 露盤 仰花가 있을 뿐이며 三層 屋蓋石 上面에 徑 九cm 深 一〇.五cm의 擦柱孔이 있다. 破損이甚하여 哀惜하나 原來는 優秀한 彫刻과 아울러 美塔이 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이 兩 遺物은 原位置에서 移動된 것 같지는 않으며 彫刻手法도 優秀하여 그 製作은 新羅下代로 推定되었다.

竹嶺 白龍寺의 石佛坐像

— 新羅五岳調查記 其八 —

鄭 永 鎬

이 佛像은 六·二五前까지 竹嶺頂上의 白龍寺에 奉安되었던 石佛로 動亂時 寺刹이 全燒廢寺跡에 現位置로 移安한 것이다. 中央線의 喜方寺驛前 小峰중턱에 近年에 새로 지은 白龍寺(竹嶺頂上의 舊白龍寺를 옮겼다)고 함) 龍華殿內에 主尊佛로 奉安하고 있는데 한편 여기서 佛堂은 洞窟을 利用한 建物임과(넓이 約八坪) 또 前庭에 八角竿石一片(註)이 있는 것이 注目된다 할 것이다.

結跏趺座한 石佛의 螺髮 頭頂에는 肉髻가 낮으며 兩眉間에 白毫孔이 있고(現在는 水晶으로 白毫를 新造한) 목에는 三道가 둘러졌다. 兩耳는 짧은 편이나 鼻部口唇等 相好各部가 整齊되고 양볼이 厚肉하여 威嚴이 있어 보인다. 通肩法衣는 兩腕을 걸쳐 앞으로 퍼졌고 胸前에는 裙衣帶가 보이며 手印은 降魔印을 結하였다. 光背는 寶珠形으로서 頭光은 圓座周邊에 八瓣에 單葉蓮華紋이 彫刻되었고 그 周緣에서 大彫二線으로 身光을 表現하고 있는 데 그 間地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化佛은 頂上에 一座 中間 左右에 一座씩 都合 三軀를 配置하였는바 三軀 모두가 같은 樣式手法으로 서 蓮莖이 있는 仰蓮座上에 結跏趺座

